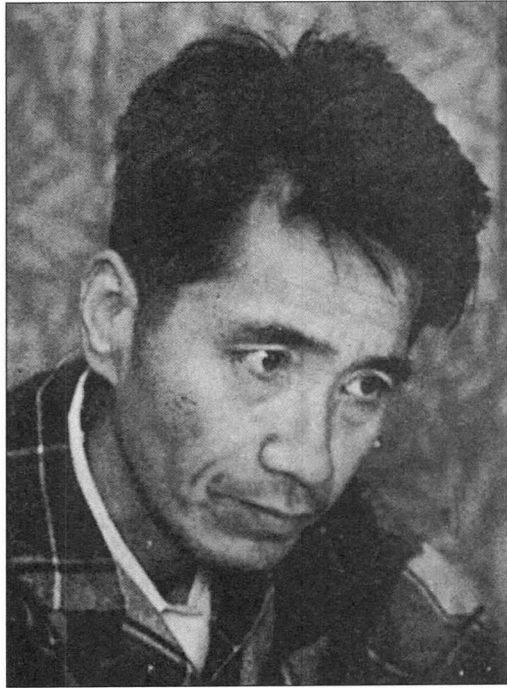


“시인은 선천적인 혁명가”

‘참여’ 시인 김수영과의 만남

유재천

경상대 교수 · 국문학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문화와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외국 것을 도입하더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 코드로 번역해 재구조화할 때 외국 문화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김수영 시인.

60년대 대표적인 참여시인 김수영이 작고한 지 지난해로 만 30년이 되었다. 김수영은 평생을 자신의 삶과 문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시인이면서 시와 삶을 혁명으로 이해했던 참여시론의 이론가이기도 했다. 개혁과 개방의 회오리 속에서 2000년대를 코 앞에 두고 있는 1999년 새해 김수영과의 가상대담을 통해 개혁과 우리 문학의 갈 길을 되새겨 본다.

현실에 대한 정직한 자각

유재천 — 선생님에 타계하신 지 벌써 삼십년이 지났군요. 그동안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며,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강력한 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저대한 뿌리〉에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정과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김수영 — 우리의 현대사는 혼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정치나 문화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저대한 뿌리〉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이 외국의 것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서구의 진보적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그것을 직수입하여 우리 현실을 바꿔나가려는 태도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국의 진보적 이념은 그것을 낳은 역사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역사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나름의 당위성을 갖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이 외국 그것과 다른데 외국의 진보이념을 따라 혁명과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대한 뿌리〉에서 수구적인 태도와 진보적인 입장 모두를 비판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올바른 혁명,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유스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개혁은 국민적 동의와 시대적 당위성을 얻고 한국적인 삶과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고,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습시다. 오히려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일이지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결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에 대

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고쳐나갈 한국적인 정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굳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과의 싸움이 시작행위

유재천 — 선생님은 혁명이 상대적 완전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혁명이란 무엇이며 왜 상대적인지요.

김수영 — 혁명이라는 것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란 정치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이원적 존재입니다. 이원적 존재로서 인간은 받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토끼’와 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지상적 세계와 타협하거나 그 반대로 지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하고 초월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태도는 둘다 자유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한계상황으로서 지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사상과 행동, 정서가 통일된 완전한 자아, 완전한 자유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회적인 자기혁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나가고 죽음 위에 죽음을 거듭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불교에도 ‘돈오점수’라는 말이 있지요. 한번의 깨달음으로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또 계속해서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혁명 역시 마찬가지지요. 단 한번의 혁명으로 새로운 세계, 완전한 자유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제도는 또 다른 구속을 낳고 자유를 구속하게 마련입니다. 벽은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온갖 식구들과 적들과 적들의 적들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삶과 같습니다.

유재천 —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선생님은 시작행위를 온몸으로 동시에 온몸을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김수영 — 제가 온몸이라고 한 것은 시는 원칙적으로 내용,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를 논할 때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만 그것은 논의를 위한 방편이지, 시가 내용 따로 형식 따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는 내용면에서도 온몸이고 형식면에서도 온몸입니다. 온몸으로 온몸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것은 따라서 내용으로 형식을 밀고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내용은 현실성의 측면이고 완전한 사회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기존 질서와 제도 등 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질서와 형식을 뚫었을 때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것처럼 시는 기존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 즉 내용에 맞는 형식을 성취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달라는 내용과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형식간의 싸움이 바로 시작 과정인 셈이지요. 그 싸움의 승리가 바로 시이며 자유, 새로움의 성취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본능

유재천 — 80년대 급진적인 민중문학이 주류를 형성하다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시조의 도입 문제를 어떻게 보시지요.

김수영 — 새로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낡은 질서와 형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는 벽입니다. 이 벽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삶에 대한 사랑과 새로움과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형식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움에 대한 욕구는 자유에 대한 욕구와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움에 대한 추구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인은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선천적인 혁명가이며 영원한 배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미지에 있고 미지의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입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를 위해 무단히 현실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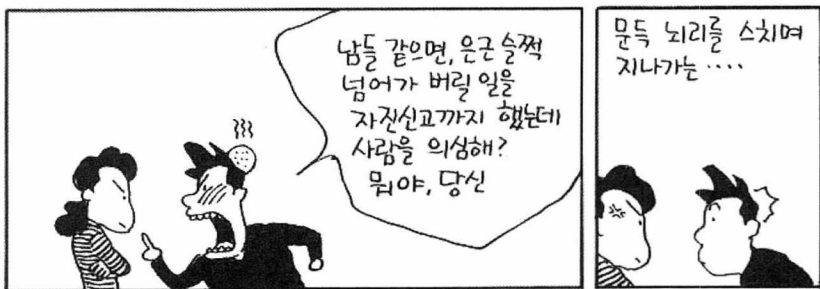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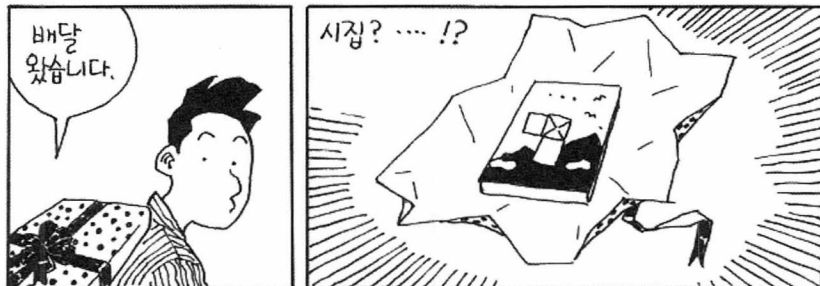
그러나 시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서 내용 따로 형식 따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을 무시한 내용만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온몸이라는 말을 했지만 시는 내용면에서도 온몸이고 형식면에서도 온몸입니다. 따라서 기존 형식 안에서 얼마든지 내용의 자유를 누릴 수 있거나 내용의 새로움 없이

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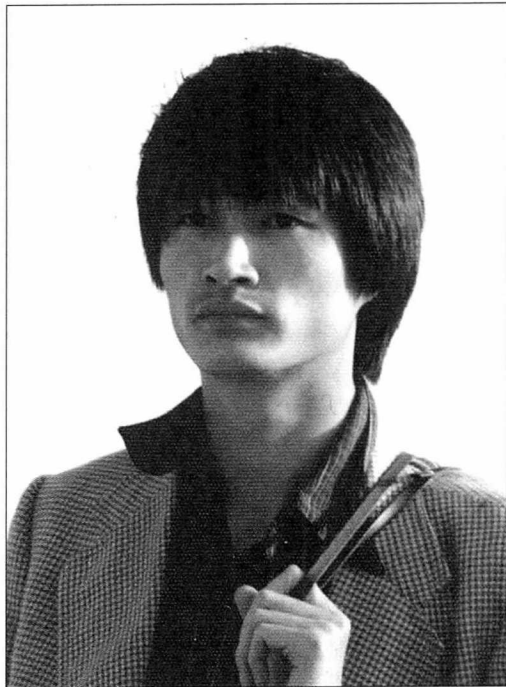


괴장

박시범



“80년대 급진적인
민중문학이 주류를
형성하다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사조의 도입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유재천 교수

형식의 자유만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실제성이 지나친 참여시, 내용은 구태의 연하면서 형식만 현대적인 순수시 모두 새로운 의미라는 면에서는 실패한 시들입니다.

앞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할 때도 언급된 얘기지만 형식적 새로움을 얻기 위해 외국의 새로운 사조를 도입하는 경우 우리 삶의 내용과 통일성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새로운 사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삶과 미적 관념을 토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미적 관념과 삶이 외국의 것과 다른데 단순히 외국의 새로운 형식만 도입한다고 해서 시적인 새로움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미적 관념과의 극단적인 부조화로 독자들이 알 수 없는 난해시, 가짜시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문학계에서 심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외국의 선진적인 사조나 방법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학사는 외국 사조의 수입사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화되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국의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도입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문화와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것을 도입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 코드로 번역해 우리 문화를 재구조화할 때 외국문화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우리 문화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시인들의 새로움의 추구는 내용 따로 형식 따로가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의 삶과 전통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유재천 -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2000년대 우리 사회와 문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